

정신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현진¹, 조영희^{2*}

¹천주의성모병원 간호사, ²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Psychiatric Nurse's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Nursing Performance

Hyun Jin Yoo¹, Young-Hee Cho^{2*}

¹Nurse, St. John of God Hospital, Gwangju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및 간호업무성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간은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점, 직무만족도는 3.32점, 간호업무성과는 3.74점이었다. 연구결과에서 간호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와 정신과 근무경력이었다고 설명력은 40.2%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 정신간호사, 영향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job satisfaction, nursing performance of psychiatric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140 psychiatric nurses and data was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during Aug, 2018 to Oct, 2018. The result of this study,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was 3.35 points, job satisfaction was 3.32 points, nursing performance was 3.74 points. The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performance were job satisfaction and current work experie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40.2%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nursing performance of psychiatric nurses.

Key Words :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Job Satisfaction, Nursing Performance, Psychiatric nurse, Influence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발췌본임.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Cho(choyh@kwu.ac.kr)

Received May 3, 2022

Revised May 11,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1].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의 표준화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이와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중 가장 많은 수의 전문인력인 정신간호사는 더욱 전문적이며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1].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의료기관인증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이해하며 이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병원간호사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고,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이 증진된다[3]. 그러나 의료기관인증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력적, 시간적인 부담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의도 및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4]. 따라서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보수 및 동료, 상사, 인사, 복지, 등과 같은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5].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간호업무성과도 저하될 수 있다[6]. 특히 정신간호사는 대인관계를 통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를 공감, 존중, 수용해야 하는 간호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간호사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간호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7].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정도를 뜻한다[8]. 따라서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은 간호의 질적인 향상 및 간호의 전문성 증진과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9]. 특히 의학적 간호의 제공 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생활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능력, 스트레스 관리기술 등의 향상을 돕고, 바람직한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정신간호사의 치료적 역할은 타 임상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독자적이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관련요인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1,7].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수 보고 되었으나[10], 국내에서 의료기관인증경험이 있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정신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관인증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과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1485-201807-HR-001-27)을 받아 진행하였다. K도, J도, G 광역시의 정신건강의학과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간호부의 허락을 득한 후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 암호화하여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에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희망자에 한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6 program으로 회귀분석의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수는 138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되었으며,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주요정보가 누락된 30부를 제외하고 총 140부를 최종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El-Jardali 등[12]이 개발, Park[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고, 7개의 하부영역,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 .98였다.

2.3.2 직무만족도

Slavitt 등[13]이 개발, Kim[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고, 7개의 하부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CVI = .88였다.

2.3.3 간호업무성과

Ko 등[15]이 개발, Woo[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고, 4개의 하부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Woo[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CVI = .92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분포 확인 후 모수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및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업무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10.7%(15명), 여성 89.3%(125명)이었고, 30세 이하가 30.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 56.4%(79명)이 더 많았고, 학력은 4년제 55.7%(78명)가 가장 많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1.4%(72명)이었고, 총 임상경력은 5년 미만 34.3%(48명), 정신과 근무경력은 5년 미만 50.7%(71명)이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67.9%(95명)로 가장 많았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자가 62.9%(88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이 성별($t=2.39$, $p=.018$), 종교($t=2.05$, $p=.042$), 총 임상경력($F=2.91$, $p=.037$), 정신과 근무경력($F=3.22$, $p=.025$), 근무형태($t=2.76$,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성별($t=2.38$, $p=.019$), 종교($t=2.10$, $p=.037$), 총 임상경력($F=4.32$, $p=.006$), 정신과 근무경력($F=6.73$, $p<.001$), 직위($F=3.42$, $p=.036$), 근무형태($t=2.67$, $p=.00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업무성과는 총 임상경력($F=8.41$, $p<.001$), 정신과 근무경력($F=11.58$, $p<.001$), 직위($F=10.96$, $p<.001$), 근무형태($t=3.04$,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3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정도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 ± 0.46 점이었다. 하부요인은 승인이 3.47 ± 0.47 점으로 가장 높았고, 리더십 몰입 및 지지관련이 3.24 ± 0.65 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만족도는 3.32 ± 0.45 점이었고, 하부요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3.55 ± 0.6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율성이 3.10 ± 0.63 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업무성과는 3.74 ± 0.45 점이었고, 하부요인은 간호업무 수행태도가 3.81 ± 0.46 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 적용이 3.56 ± 0.60 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4 변수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업무성과와 의료기관인증제 인식($r=.36$, $p<.001$) 및 직무만족도($r=.54$,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atisfaction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15(10.7)	3.38±0.46	2.39(.018)	3.35±0.44	2.38(.019)	3.75±0.43	0.91(.362)
	Female	125(89.3)	3.09±0.37		3.06±0.50		3.64±0.54	
Age	< 29	43(30.7)	3.21±0.45	2.25(.085)	3.32±0.38	0.06(.981)	3.61±0.38	2.46(.065)
	30 ~ < 40	37(26.5)	3.37±0.45		3.32±0.34		3.75±0.37	
	40 ~ < 50	30(21.4)	3.47±0.45		3.30±0.66		3.77±0.58	
	≥ 50	30(21.4)	3.41±0.47		3.35±0.45		3.89±0.43	
Marital status	Single	61(43.6)	3.31±0.53	-0.92(.362)	3.33±0.38	0.20(.844)	3.67±0.41	-1.79(.075)
	Married	79(56.4)	3.38±0.40		3.32±0.50		3.80±0.47	
Education	College	48(34.3)	3.36±0.39	2.40(.094)	3.28±0.42	0.96(.385)	3.74±0.39	2.44(.091)
	Bachelor	78(55.7)	3.30±0.49		3.32±0.43		3.70±0.45	
	≥ Master's degree	14(10.0)	3.59±0.39		3.48±0.66		3.98±0.56	
Religion	Yes	72(51.4)	3.43±0.47	2.05(.042)	3.40±0.41	2.10(.037)	3.78±0.48	0.97(.336)
	No	68(48.6)	3.27±0.43		3.24±0.49		3.71±0.41	
Total career (year)	< 5 ^a	48(34.3)	3.26±0.47	2.91(.037)	3.33±0.37	4.32(.006) b<d	3.63±0.39	8.41(<.001) a,b,c<d
	5 ~ < 10 ^b	23(16.4)	3.23±0.59		3.08±0.46		3.59±0.39	
	10 ~ < 15 ^c	23(16.4)	3.36±0.29		3.25±0.43		3.62±0.52	
	≥ 15 ^d	46(32.9)	3.50±0.42		3.47±0.50		3.99±0.39	
Psychiatric career (year)	< 5 ^a	71(50.7)	3.29±0.47	3.22(.025)	3.30±0.40	6.73(<.001) b<c,d	3.60±0.41	11.58(<.001) a,b,c<d
	5 ~ < 10 ^b	24(17.1)	3.24±0.47		3.04±0.54		3.69±0.44	
	10 ~ < 15 ^c	19(13.6)	3.41±0.35		3.42±0.40		3.81±0.45	
	≥ 15 ^d	26(18.6)	3.58±0.44		3.57±0.42		4.13±0.28	
Position	Staff nurse ^a	95(67.9)	3.30±0.48	2.62(.077)	3.27±0.44	3.42(.036)	3.64±0.43	10.96(<.001) a<c
	Charge nurse ^b	19(13.6)	3.33±0.37		3.31±0.47		3.83±0.48	
	≥ Head nurse ^c	26(19.6)	3.53±0.42		3.53±0.46		4.06±0.30	
Work pattern	Fixed day	52(37.1)	3.49±0.40	2.7(.007)	3.45±0.43	2.67(.009)	3.89±0.45	3.04(.003)
	Shifts	88(62.9)	3.27±0.48		3.25±0.45		3.66±0.42	

Table 2. Levels of Variables

(N=140)

Variables	M(SD)	Min~Max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3.35(0.46)	1.91~4.50
Quality result	3.33(0.64)	1.80~4.80
Leadership commitment	3.24(0.65)	1.00~4.67
Strategic quality improvement	3.33(0.54)	2.00~4.86
Employment utilization	3.25(0.57)	1.33~4.67
Quality management	3.33(0.62)	1.50~4.83
Information use	3.40(0.59)	1.71~4.71
Accreditation	3.47(0.47)	1.93~4.57
Job Satisfaction	3.32(0.45)	1.85~4.60
Level of professionalism	3.30(0.62)	1.00~4.80
Nurse-doctor relationship	3.54(0.64)	1.50~5.00
Interaction	3.50(0.59)	1.50~4.50
Autonomy	3.10(0.63)	1.00~4.67
Administration	3.30(0.56)	2.00~4.67
Business requirements	3.19(0.51)	2.33~5.00
Family & relationship	3.55(0.64)	1.00~5.00
Nursing Performance	3.74(0.45)	2.29~4.88
Performance capability	3.79(0.47)	2.57~5.00
Performance attitude	3.81(0.46)	2.25~5.00
Performance improvement	3.71(0.61)	2.00~5.00
Nursing process application	3.56(0.60)	2.00~5.00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r (p)	Job Satisfaction r (p)	Nursing Performance r (p)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1		
Job Satisfaction	.51(<.001)	1	
Nursing Performance	.36(<.001)	.54(<.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formance

	B	SE	β	t	p	Adjusted R ²
(constant)	2.148	0.218		9.845	<.001	
Job Satisfaction	0.433	0.067	0.442	6.459	<.001	
Psychiatric career (year)	0.002	0.000	0.355	5.186	<.001	.402

F= 47.696(ρ<.001), Adj R²=.402

3.5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업무성공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과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2.082이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가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beta=0.442, p<.001$), 정신과 근무경력($\beta=0.355,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40.2%였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관인증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공의 상관관계 및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점이었고, 하위영역 중에서는 인증영역이 3.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11]의 연구에서의 3.80점과 비교하여 다소 낮았으나, 일반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Mun 등[16]의 연구에서의 2.90점, Park[17]의 연구에서의 3.2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의무적으로 인증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가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인증영역에 대해 비교적 인식이 높고, 인증제도를 통한 병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3.32점이었고, 하위영역중에서는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율성이 3.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Seo 등[19]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3.21점, 하위 영역 중에서는 자율성이 3.03점으로 가장 낮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정신간호사는 치료적 관계를 통해 자기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업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아, 독자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업무성공은 3.74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20]의 연구에서의 3.64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에서는 업무수행태도가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과정 적용이 3.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료적 관계 안에서 대상자의 감정 및 반응을 수용, 공감하며,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증상 및 반응에 따라 신체적 간호 뿐 아니라 감정상태까지도 사정하며, 독자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해야하는 정신간호분야에서의 간호과정의 적용의 활성화 및 교육과정에서의 간호 과정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공은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및 직무만족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11]의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제 인식과 간호업무성공이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간호업무성공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와 정신과 근무경력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간호업무성공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이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던 Park[1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통계분석방법의 재고 및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직무만족도는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직률도 낮추고, 사기와 근무의욕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호업무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21]. 또한 정신과 근무경력도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간호사는 자기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여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간호를 제공하게 되고, 보다 좋은 치료자가 되기 위한 슈퍼비전 등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실무 경험이 풍부해지고, 치료적 의사소통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어 업무에 대한 역량도 향상되어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11].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공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

적인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무만족의 하부 영역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자적인 간호업무의 자율적 적용기회 확대 및 능동적인 간호의 영역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9]. 또한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고, 재직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프로그램 및 행정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와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병원 간호사 중 의료기관인증을 경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 ± 0.46 점, 직무만족도는 3.32 ± 0.45 점, 간호업무성과는 3.74 ± 0.45 점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제는 성별, 종교, 총 임상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무만족도는 성별, 종교, 총 임상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직위,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업무성과는 직위, 총 임상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인증제 인식($r=0.36, p<0.001$) 및 직무만족도($r=0.54, p=0.001$)와 간호업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직무만족도($\beta=0.442, p<0.001$), 정신과 근무경력($\beta=0.355, p=0.001$)이었고, 설명력은 40.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증제를 경험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지역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확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H. Cho, Y. R. Kewon & B. Jo (2015).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Psychiatric Nurses' Image Scale (PSYNI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4(2), 320-329.
DOI : 10.12934/jkpmhn.2015.24.4.320
- [2]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7). <https://www.koiha.or.kr/>
- [3] M. J. Kim & J. S. Choi. (2015). Effects of Perception of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and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The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2(2), 87-95.
DOI : 10.5953/JMJH.2015.22.2.87
- [4] Y. H. Choi. (2011). *Effects of Nurses' Awareness on Medical Institution Evaluation on Nursing Performanc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5] Y. R. Yeun. (2013). The impact of Healthcare Accreditation on Patient Safety and Qual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bout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4), 1820-1829.
DOI : 10.5762/KAIS.2013.14.4.1820
- [6] H. S. Song. (2012). *A study on the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in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eonju
- [7] J. W. Hwang & J. Y. Bae. (2017). Influence of Mental Health Nurses' Moral Di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6(4), 325-332.
- [8] Y. J. Kim.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on Nursing Performance of Outpatient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9] H. J. Wo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Korean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10] I. S. Jang, S. J. Lee, A. R. Song & Y. J. Kim. (2018). Influence of Resilience and Anger Expression Style on Nursing Work Performance in Emergency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7(4), 247-256.
- [11] S. H. Park. (2015). *Effects of Psychiatric Nurse's Awarenes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Nursing Performan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2] F. El-Jardali et al. (2008). The Impact of Hospital Accreditation on Quality of care: Perception of Lebanese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5), 363-371.
- [13] D. B. Slavitt, P. L. Stamps, E. B. Piedmont & B. Hasse. (1978). Nurse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27(2), 114-120.
- [14] T. H. Kim. (1998). *Study of the Duty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and General Nurse in the Mental Hospital*.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15] Y. K. Ko, T. W. Lee & J. Y. Lim. (2007).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easurement Scale for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86-294.
- [16] M. Y. Mun, S. Y. Lee & M. Y. Kim (2018). Influence of the Awareness of Healthcare Accreditation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Tertiary Hospital Nurs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7(3), 180-189.
DOI : 10.5807/kjohn.2018.27.3.180
- [17] H. J. Park (2017). *Effects of Nurses' Awareness about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18] K. H. Kim. (2012). *Relationship among Nurses' Perception of Accreditation,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an Accredited Healthcare System*.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9] D. H. Seo & S. E. Oh. (2005).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General Psychiatric Nurses.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10(1), 141-150.
- [20] S. I. Lee & E. J. Lee. (2016).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1(4), 267-276.
DOI : 10.21097/ksw.2016.11.11.4.267
- [21] J. H. Sim & H. Y. Kim. (2014). The control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among Employment Service Employe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7(1), 35-65.

유 현 진(Hyun-Jin Yoo)

[정회원]



- 2019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0년 6월 ~ 현재 : 천주의성 요한병원 정신건강간호사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
- E-Mail : hyunjin7595@hanmail.net

조 영 희 (Young-Hee Cho)

[정회원]



- 2014년 9월 ~ 2016년 3월 : 기독교 간호대학교 조교수
- 2016년 4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윤리교육, 임상교육, 도구개발, 교육
- E-Mail : choyh@kwu.ac.kr